

21세기 女性の 政治的 役割

세미나 參加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參席해 주셔서 대단히 感謝합니다. 특히 이번 韓日女性 세미나를 위하여 멀리 日本에서 오신 오부치 게이조 總理 令夫人을 비롯한 超黨的인 政治指導者 및 女性指導者 여러분의 韓國訪問을 眞心으로 歡迎하면서 심심한 感謝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세미나에 많은 協助를 해주시고, 參與해주신 우리 나라 女性指導者 여러분께도 感謝드립니다.

韓日 兩國의 女性指導者 여러분!

오늘 세미나는 우리 두 나라 女性들이 女性으로서 過去와 現在의 經驗을 나누면서 서로의 和解와 協力을 위한 友誼의 礎石을 만드는 重要的 만남의 場입니다. 우리 두 나라 關係에서 兩國의 女性指導者들이 한자리에 모여 갖는 虛心坦懷한 意思疏通의 機會는 互惠적 發展을 바라는 두 나라 女性指導者들의 오랜 所望의 結實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女性指導者 여러분!

20세기는 地球上의 모든 女性에게 참으로 어려운 時代였습니다. 世界大戰, 革命, 獨立鬭爭, 이데올로기의 分裂과 軍備競爭 그리고 生態界 破壞 등으로 얼룩진 20세기는 이제 歷史的 時間을 마감하고 平和와 共存, 競爭과 協力을 指向하는 새로운 希望의 千年代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分明 거친 男性 中心의 世紀였고, 女性の 疏外와 從屬, 差別의 家父長主義 世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이 始作되는 文明史的 大轉換期에 서있습니다. 女性, 人權, 經濟, 情報, 知識, 環境問題에서 國際競爭과 協力이 日常化되고, 地球村 成員으로서의 自覺과 글로벌 휴머니즘의 價値理念이 促進되고 있습니다.

知識과 疏通技術의 革命的 發達로 한 國家, 한 地域의 決定이 全世界에 影響을 미치고, 한 國家로는 解決할 수 없는 새로운 이슈가 時時刻刻 登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急迫한 變化와 더불어 어느 나라에서나 女性의 主流化를 저해하는 家父長的 秩序가 解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家父長主義로는 새 千年代의 發展을 保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世紀의 徵候 앞에서 지금까지 歷史에서 疏外된 女性들이 差異와 多樣性을 受容하는 새로운 文明의 開化와 더불어 歷史의 前面에 登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女性의 世紀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편 男性 優位를 人間의 本質로 思惟하는 男性 中心的 思考의 女性에 대한 偏見과 固定觀念이 消滅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近代企劃의 產物인 個人의 疏外와 차가운 物質的 計算이 內在된 西歐의 思想은 自然으로부터 人間の 疏外를 克服, 自然과의 調和 속에서 人間の 本質을 回復하고 人間の 解放을 省察的으로 指向하는 共存·共生の 母性的인 東洋의 共同體 思想을 理解하고 受容하는 쪽으로 發展되고 있습니다.

西歐 物質文明은 人類와 地球上의 生命의 切實한 威脅을 가져왔습니다. 反對로 地球上의 모든 存在에까지 配慮하는 새로운 啓蒙思想이 우리 東洋에서 發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 亞細亞·太平洋 時代 到來의 前提는 韓國과 日本의 未來指向的 同伴者的 關係 構築에 있고 그 協力的 關係는 우리 韓國과 日本女性들이 같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韓·日 女性 指導者 여러분!

韓日 兩國의 共同發展과 21세기의 希望을 우리들이 펼쳐 나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多國籍 企業의 글로벌 擴張으로 生産資本의 開發戰略이 女性의 世界的 貧困化를 加速化하여 女性이 世界化의 덫에 抑壓되지 않게 하기 위한 共同의 戰略이 바로 韓日 女性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球村 時代, 女性 問題 克服은 個別國家만의 勞力으로는 限界가 있습니다. 때문에 急變하는 世界的 흐름은 이곳 東北亞細亞에서 우리 두 나라 女性指導者들의 긴밀한 協力關係 構築을 切實히 要請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세미나의 意義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政治的인 影響力을 가지고 있는 韓日 女性들이 最初로 直接 만나는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對話를 하고 討論을 하여 두 나라 女性들이 連帶를 強化하는 契機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討論으로 서로에게 어두웠던 過去를 清算하고 새로운 協力關係 위에서 東北亞에서 진정한 平和와 發展과 繁榮의 기반을 일구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女性들의 連帶는 韓日 關係의 모든 舞臺를 武力이나 經濟力을 重視하는 男性獨占舞臺에서 平和와 協力과 相互繁榮을 위한 男女共同의 舞臺로 轉換시킬 것입니다.

尊敬하는 韓日女性指導者 여러분!

늘날 歷史의 方向은 差別에서 平等과 多樣性으로, 垂直的 支配에서 水平的 參與와 分權·調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歷史的 推動力은 바로 女性들이고, 여기 모이신 韓國과 日本 兩國의 女性 指導者の 몫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現在 女性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差異와 多樣性을 受容하여 政治的 決定에 參與함으로서, 正當性的 資源 供給을 重視하는 政治的

變化와 改革을 主導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의 女性과 比較할 때 요즘 女性들의 認識은 革命的으로 變해가고 있으며, 時代의 變化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急激한 科學·情報革命과 더불어 教育水準이 높아졌으며, 避妊과 技術의 發達로 出産과 育兒의 負擔에서 벗어나, 歷史의 記錄에서 男女平等의 새로운 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女子라는 理由로 職業을 拋棄한다든지, 女子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림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女性은 극히 少數에 不過합니다.

21세기 歷史의 動力은 女性입니다. 지난 週 日本 訪問時 제가 만난 日本 女性들은 活氣와 自信感和 能力으로 自身들의 未來를 開拓하고 있었습니다. 最近에 러시아에서, 美國, 濠洲에서 만난 女性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創造的인 意慾과 活力, 能力으로 自己 國家의 發展에 主導的으로 參與하고 있었습니다.

外國에 巡訪을 나가면 저는 女性들의 삶의 質과 機會에 關心을 기울입니다. 外國에서 一般女性들을 접할 機會가 많지는 않지만, 女性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對面한 女性들은 거리낌없이 未來를 開拓하고 現實의 打開과 改革에 充滿하였습니다. 그것은 歷史에 參與하고 새로운 歷史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눅들고 눈치보고 지쳐있는 女性은 博物館의 옛 寫眞으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女性들의 自己 實現과 開發의 機會가 增大되고 있습니다.

女性指導者 여러분!

이와 關聯 21세기 亞細亞에서 女性에게 要求되는 德目は 社會·文化的인 傳統의 背景 때문에 西洋과 다를 수가 있을지라도, 家族間的 紐帶와 情은 東西洋 모두에게서 지켜져야 할 重要的 價值입니다. 父母에

대한 尊敬과 子息에 대한 사랑은 普遍的 價値에 屬합니다.

저는 20대부터 女性運動을 했습니다. 大學을 卒業하면서, 女性問題研究會라는 團體에서 民法上的 女性差別待遇를 改善하고 男女平等法 改定을 위해 活動하였습니다.

그후 美國 遊學을 거쳐 YWCA에서 女性運動을 했습니다. 女性의 地位가 극히 낮았던 當時에 저는 女性運動에 보람과 自負心を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政治家의 아내로서 그의 同伴者, 同志로서 平生을 보냈습니다. 野黨政治人の 配偶者로 온갖 政治的 苦楚를 함께 겪으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살다보니 오늘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間或 이런 말을 합니다. 結婚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女性運動家로 直接 政治를 했으면 더 유명해지고 좋지 않았겠느냐고 우스개 소리를 합니다. 누구의 夫人보다는 自己 이름이 있는 女流名士가 더 좋지 않느냐는 뜻이겠지요.

저는 이름에 未練이 있는 건 아니지만 女性運動에 대해서는 未練이 있습니다. 그러나 結婚生活을 통해서 저는 모든 아내와 어머니들을 尊敬하게 되었습니다. 알뜰히 살림하여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 敎育에 最善을 다하면서 家庭을 지켜온 女性들은 自己 이름을 가진 女性들 못지 않습니다. 아니 더 훌륭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時代가 變하고 있고 變化된 時代에서는 女性들이 家庭生活과 社會生活을 兩立할 수 있게 된 點에서 差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點에서 女性도 이제는 社會의 主體로서 政治의 前面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尊敬하는 女性 指導者 여러분!

韓國은 지금 重大한 變化의 時期를 맞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제2의 建國을 宣言하고 先進社會로의 跳躍을 위해 努力하고 있습니다. IMF라는 經濟的 混亂 속에서도 國民的 團합을 이루어 經濟難局을 克服했습니다. 民主主義와 市場經濟를 同時에 追求하면서 社會全般의 構造調整과 改革에도 拍車를 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跳躍을 위한 社會全般의 改革作業에서 女性 指導者들의 役割이 더욱 重要해지고 있습니다.

中央이나 地方의 議會議員으로서, 議員들의 夫人으로서, 經濟界와 女性界의 指導者로서 女性의 政治參與에 대한 否定的 視角을 發展的이고 肯定的인 視角으로 變化시키면서 새로운 千年을 위한 準備에 同參이 要求되고 있습니다.

에 東洋的인 家父長的 思想으로 縮小된 女性의 삶의 機會를 새롭게 擴張시켜 女性自身이 스스로 價値있는 삶을 위해 精進할 수 있는 機會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성은 유권자의 절반이지만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여성의원 수는 극히 적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역구에서 선출된 여성은 전체 국회의원의 1%에 불과합니다. 여성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 정치의 세계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한편 정치가의 부인들은 지역구 관리나 선거활동을 하면서 제 2의 정치가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원부인들의 정치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좋게 보지 않는 여론은 한일 양국 모두에 뿌리깊게 남아있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여성정치인 뿐 아니라 정치가 부인들이 정치일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활동이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곧 아시아에도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시아에도 남성지배구조는 여성참여구조로 변화할 것이고 여성의 시대가 펼

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사회적 불균형이 시정되며 여성의 정치적 영역이 넓혀질 때, 정치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세계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보완하고, 도덕적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여성정치인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전 세계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범세계적인 여성의 연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일 여성 지도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의 여성지도자들은 오늘과 같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21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여성상을 확립하기 위해 자각적인 연대활동을 구축하고 상호의존·발전적인 활동영역을 진취적으로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한일 양국 여성지도자들이 여성의 정치적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정치활동의 경험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일 양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앞당겨질 것이며 여성 공동의 힘으로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새로운 여성 참여정치문화를 구축하면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층인 여성정치인들과 의원부인들이 국제 교류를 통하여 세계를 향해 창조적인 역할을 개척하는 적극적인 여성상을 보여주고 활동기준을 설정하여, 전 여성들에게 보람된 자기 실현의 길을 열고 진취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아시아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여성정치인으로서의 역량개발과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일 여성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여성이 제몫을 찾고, 제자리를 찾아서 한일 양국 모두에서 남녀공동책임 사회의 실현을 주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녀공동 책임의 사회가 일각에서 무너지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의 기회가 증대되고 사회참여가 증대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가족공동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대화공동체로의 발전 기회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어머니는 직업이나 자아실현, 취미활동 등으로 예전과 달리 가정 밖의 일로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향락적, 소비적인 문화에 무방비적으로 유혹 당하면서 가정은 빈둥지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율이 높아가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살더라도 각기 파편화된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가출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가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현대사회는 국가, 사회, 가정이 남녀의 공동 책임과 의무로 운영되는 것을 원리로 합니다. 국가, 사회, 가정 등 모든 위치에서 균형을 이룬 새로운 대안 속에서 가정과 국가, 사회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발목을 잡는 모성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품어내는 모성을 회복하여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국가, 사회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한 가족 공동체를 건설하는 여성들의 현명함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사회가 바로 민주화된 사회일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정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논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함께 결정하는 사회가 바로 참다운 민주사회일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세계화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정치의 민주화는 사회 전반의 민주화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참여를 통해 남성, 여성이라는 성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지역·학벌에 의해 차별되지 않는 왜곡되지 않은 대화로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해내는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에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여성이 정치의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안적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노르웨이에서나 스웨덴에서는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의 확대에 이미 정치가 여성의 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역할은 점점 더 그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정치적 공동생활에 참여하여, 공적가치의 공유를 통하여 정치는 특권이나 특혜를 누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에 대한 배제 메커니즘의 작동을 저지하는 대안으로서 참여 정치는 정치가 나가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정치가 봉사의 덕목을 가질 때, 사회적 연대의 지평이 열려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무관심, 냉소가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국민에 대한, 사회에 대한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이 몸으로 익힌 사랑과 돌봄의 체험은 정치를 봉사의 차원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정치를 주도할 사람들은 따라서 여성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제적 역할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기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가정주부는 3명에 1명 꼴로 혼자서 가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미숙련 노동에 집중되어 있었던 여성 직업이 다양화되고 여성의 경영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경제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소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의미있고 중요한 자원봉사활동을 원합니다. 여성들은 사회봉사자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매맞는 여성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성을 돕고 있고,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나 노인을 구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을 지키는 사회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참된 인간애를 갖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칠 때 비로소 여성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21세기에 더욱 더 빛이 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가정에서의 역할이 더 중대해지고 있으며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을 결속시키는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여성이 가정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를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은 가족도 만족하고 여성도 만족하는 윈-윈적인 역할, 즉 여성과 가족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적인 동반자 관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행복도 원하고 자신의 일도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가정과 사회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정치가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여성 여러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여성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동적으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수십년의 세월 보다 앞으로 살게 될 수년간 세계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입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여성지도자들은 어떤 비전을 갖고 나가야 하는 걸까요?

여기 모인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공통점과 동일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이라는 공통점과 아시아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에서 각기 여성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고, 한일간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들의 만남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어 다음 세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의 길을 공동으로 모색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성지도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맙시다. 여성으로서의 공통점과 아시아인으로서의 동일한 책무를 잊지 맙시다. 한일 양국여성지도자들의 창조적인 토론, 대화, 협의는 “아시아에서 세계로” 나아갈 것이며, “아시아는 세계를” 품는 발원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 그리고 번영을 담보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가 우리 양국간 여성들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미의 지평은 미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정한 친구로서 만남은 앞으로의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같이 여는, 1천 5백년에 걸친 한일 양국간 우호와 협력의 역사가 새로운 파트너십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만남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 우정의 이삭을 줍는다면 다음 모임에서는 공동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한국과 일본 양국 여성지도자 모임에서 아시아 전역의 여성지도자 모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촛불이 이어져 두 배로 밝아졌다면 앞으로 네 배로 다시 여덟 배로 밝아질 날도 틀림없이 올 것입니다. 한일 양국 여성지도자 여러분의 앞날에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0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 이회호